



책 속의 밑줄 긋기

“불교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고통이 가득한 사바세계라고 했으니, 이렇게만 본다면 염세적... 우리가 풍기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우리가 겪는 고통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나 다 포기하고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면 분명 불교는 염세주의가 맞다. 그러나 나의 현실이 괴로운데도 이를 애써 외면하거나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괴로운 상황은 결코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불교에서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괴로운 현실을 방치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찾아내서 제거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분명한 것은 괴로움이라는 문제의식이 없다면 행복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불교란 무엇인가> 중에서

“종교와 인문학은 불교라는 새의 양날개”



불교란 무엇인가 글 이일야 담앤박스 펴냄 1인2천원

불교에 씌워진 오해의 덩어리 걷어내기 허무주의, 염세주의, 절대적 관념론... 인구에 회자되는 불교라는 단어를 따라 붙는 꼬리표들이다. 기복이나 미신이라는 극단적인 편협은 아예 접어들기로 하자. 그래도 여전히 속명이나 사주팔자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스탠스는 다르지만 이런 오해는 공부해나 했다는 학자들이나 불교계 내부에서도 왕왕 벌어진다. ‘참나를 찾아서’ 같은 말들이 대표적이다. ‘나’라는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다는 아트만을 전면 부정하고 무아(無我)를 전면으로 내세운 불교에 ‘참나’는 가당치 않은 말이다.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불교를 곡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 책은 이런 양극단의 오해의 덩어리를 걷어내기 위한 고안에서 출발했다.

20여 주제, 비교와 대조 통해 분명한 ‘불교’ 이 책에는 흔히 불교에 대해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는, 혹은 혼동할 수 있는 20가지 주제들이 펼쳐져 있다. 그 주제를 하나하나 대비나 비교를 통해서 제시된다. 우선 연기론은 이원론과 무상은 허무와 무아는 자아와 업은 숙명과 함께 나온다.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봄으로써 불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현실성을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낸다. 허무와 무상을 대조한 장을 살펴보자. “흔히 불교는 무상을 주장하기 때문에 허무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는 결코 불교가 아니다. 무상이라는 용어 때문에 불교는 허무주의로 오해를 받지만, 이런 오해는 무상이라는 말에 담긴 삶의 적극성과 긍정적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 데서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주장하는 무상이란 말에 담긴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벗꽃이 영원하기를 바라다거나 지나간 인연과의 이별이 덧없다하여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은 불교적 대안이 아니다. 삶은 무상하므로, 지금이라는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소중히 가꿔야 한다는 것이 무상의 진짜 속내다. 그런 점에서 무상은 과거나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를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다. 벗꽃이 모두 떨어졌다 해서 삶이 덧없다고 생각하거나 벗꽃이 만발했던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꽃이 지고 새롭게 피어난 연초록의 푸른 잎들에 대한 모독이자 현재를 사는 자신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게 새로운 인연과 자신을 모독하는 삶이 바로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책에는 허무와 무상 같이 대비되는 주제

도 있는 반면 지식이나 지혜처럼 이웃해 있는 문제들을 펼쳐놓기도 한다. 반대편과 비교해 봄으로써 오해를 없애는 방법이 한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웃해 있는 주제를 비교해 보는 건 혼동되는 주제들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작업이다. 그리고 3부에서는 그 주제를 더욱 넓혀서 이성과 신앙,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 단한 종교와 열한 종교를 비교해 보기도 한다.

“불교는 인문학이다” 저자가 글을 쓰면서 내내 견지하고 있는 하나의 원칙 내지는 논조는 바로 “불교는 인문학”이라는 명제다. “인문학은 일종의 자기 성찰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과 세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모색하는 공부이기 때문이다. 불교도 이런 성찰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자칫 왜곡된 신앙으로 흐르기 쉽다. 불교가 자신의 안위나 경제적 이익을 구하는 기복 불교로 흐르는 것은 바로 나와 세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인문학적 차원에서 불교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비교해 보고 대조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자 하지만 그 분명한 이해를 통해 저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자신과 세계에 대한 성찰이다. 믿음은 종교적 신앙이라면 이해는 인문학적 사유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바른 불교의 모습을 갖추 수 있다고 저자는 믿는다. 믿음만 강조되면 불교가 왜곡된 신앙으로 흐를 수 있고, 반대로 이해만 강조되면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말한다. “종교와 인문학은 불교라는 새의 양날개다.” 김주일 기자

저자 이일야는? 일야(一也)는 범명이자 필명이다. 전북대 철학과에서 학부와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전북대, 전주교육대, 송광사 승가대학서 철학과 종교학, 동양사상, 한국불교 등을 강의해 왔다. 보조사상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으며, <나옹선의 실천체계>(진심(眞心)과 오수(悟修)의 구조) 등을 비롯해 다수의 논문이 있다. 현재 전북대학교에서 연구처장을 맡으면서 불교사상과 경전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불교의 외연을 넓혀 이를 종교학이나 철학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데 관심을 갖고 연구 및 저술에 집중하고 있다.

“내 행동 모두 헛발질” 깨닫게 해준 <수능엄경>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능엄경>은 밀교부에 수록돼 있으며 인도 바깥으로 유통되지 못하게 하라는 왕의 엄명이 있어, 당나라 이전까지는 중국에 전해지지 않았다. 그만큼 귀중한 경전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아 중국서 많이 가필돼 거의 중국서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의 주 내용은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보리심을 얻게 되고 진정한 경지를 체득한다는 것이다. 이 것으로 봐서 중국 선가의 실천도와 근접하며, 밀교적인 색채가 짙다.

총 10권으로 구성됐는데, 부처님 제자인 아난 다(阿難陀)가 마다가 여인의 주술에 의해 마귀도에 떨어지려는 것을 부처님 신통력으로 구해낸다. 그리고 나서 선정의 힘과 백산개다라니의 공덕력을 찬양하고, 이 다라니에 의해 모든 마귀장을 물리치고 선정에 전념해 여래의 진실한 경지를 얻어 생사 괴로움 벗어나는 것이 최후의 목적임을 밝혔다.

<능엄경> 소개를 좀더 한다면 우리나라 선종의 소의경전으로, 참선 과정서 나타나는 갖가지 마군의 유혹을 분별하고 퇴치하는 법을 자세히 밝혀 수행 길잡이로서 좋은 경전중 하나다. 특히 여래장사상을 적시하고 미혹을 벗는 구체적 수행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어 불자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있다.

모든 중생의 번뇌 속에 내재된 본래 정정한 여래 법신인 여래장은 번뇌 속에 있어도 더럽혀지지 않고 절대정정하며 영원히 변함 없는 깨달음의 본성이다. 따라서 중생들의 미망 그대로가 여래장을 가리우고 나타나는 현상이며, 삼세 여래가 모두 이 여래장을 구현한 이데임을 이 경은 설파한다. 그러나 미혹으로 가득한 현상을 꿰뚫고 여래장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능엄경> 제 2권에는 이렇게 설한다.

“진실로 생멸거래(生滅去來), 상주하고 묘명하며 동하지 않고 두루 원만한 묘한 진여, 본래 여래장의 성품인 줄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여래장을 찾아야 할까? <능엄경>은 이에 대한 답으로 사마타 관법을 제시한다. 우리 마음인 영대, 곧 대원경에 끼인 때, 번뇌를 지(止)의 수행으로 정화하는 것이다. 사마타 관법으로 환심(安心)인 망념을 떨치고 참 마음이며 진리로서 영원한 주제인 불성 곧 여래장을 찾아나가기야 함을 설한다. 즉, 미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능엄경>에서는 수행할 때에 나타나는 마군의 정체와 판별법, 마군을 없애는 법을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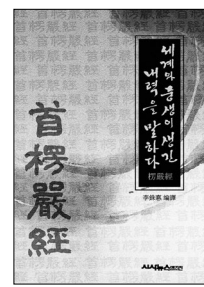


마군 없애는 법 자세히 소개

쉬운 용어 사용, 대화체로 편집

저자, 번역하면서 수행 방편 삼아

<불공>과 <반라밀제> 번역본 비교 설명



세계와 중생이 생긴 내력을 말하다

이수덕 편역 시시뉴스매거진 펴냄 3만 5천원

세히 일러준다. 마군은 특별한 게 아니다. 수행하지 않는 이에겐 그 삶 자체가 마군의 세계이므로, 마군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수행하고픈 발심을 내고 수행에 들면 그제야 마군의 존재를 본다. 이 마군의 세계는 그 자체로 공한 것이지만 진정한 깨달음을 알지 못하는 한 영원히 존재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의 세계에 얽어맨다. 마군 반대에 있는 것은 바로 여래장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이다. 마장이 미혹을 만드는 어둠이라면, 여래장묘진여성은 광명 그 자체이다. 광명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 여래장묘진여성을 깨닫게 되면 망상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마군의 세계는 절로 스러진다. 마군의 세계, 5음(五陰)의 마구니는 색수상행식의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색음(色陰) 마구니는 견고한 망상이, 수음(受陰) 마구니는 허명한 망상이, 상음(想陰) 마구니는 융통(融通)한 망상, 행음(行陰) 마구니는 유은(幽隱)한 망상이, 식음(識陰) 마구니는 허무한 전도(顛倒) 망상이 비롯된 것이다. 이 오음 마구니가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미혹됨에 있다. 미혹됨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수도해 끊어야 할 견사혹, 습기에 의해 먼지나 모래처럼 많은 진사혹, 여래장묘진여성을 알지 못해 생기는 무명혹이 그것이다. 이 미혹됨이 만드는 탁(濁)한 세계가 바로 우리 현실인 것이다. 오음의 갖가지 망상이 만드는 마구니들을 모조리 퇴치해 그에게서 해방될 때, 수행자는 해탈해 대자유인이 된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목표임을 <능엄경>은 설하고 있다.

그래서 대승경전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능엄경>은 수행하는 스님뿐 아니라 재가자들도 꼭 읽어야 할 경전이다. 불교TV사장을 지낸 이수덕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가 <수능엄경> 해설을 펴내 눈길을 끈다.

국내에 능엄경 번역본이 다수 있지만 사용한 용어 대부분이 한자라 한글세대들이 읽기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점을 고려해 이수덕 대표는 가능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또 대화체로 편집했다.

이 책은 뒤늦게 불교공부에 매진한 이 대표가 <불교수행과정서 나타난 마장과 대치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동국대 불교대학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구열의 연장선상에서 결실을 맺은 결과물이다. 특히 이 대표는 <능엄경> 번역을 하면서 그것을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행의 방편으로 삼았다.

저자인 이 대표는 머리말에서 “나아가 들면서 내 행동이 모두 헛발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어둠속에서 더듬어 온 어리석은 삶을 알게 된 것은 <수능엄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부터다”며 “이 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본업은 플랜트 업체와 운전 등 4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CEO이다. 이 대표가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에 발심한 건 불심이 두렵다고 알음알음으로 소문이나 1999년 불교TV 사장을 맡으면서부터다. 동국대 대학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이 대표는 “수행의 근간인 계율만 잘 지키면 보고 듣기에 편지 않은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게 다 수행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피력한다.

저자는 <능엄경>을 공부하는 이들을 위해 <불공번역본>과 <반라밀제 번역본>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부분은 붉은 글씨로 대괄호로 표기했고, 불공본에만 있는 부분은 붉은 글씨로 중괄호로 싸놓았다. 또한 불공본에는 없는데, 반라밀제본에만 있는 부분은 검정 글씨로 중괄호 안에 넣었다.

Advertisement for 'On-Heat Relief' (온열복대) health product.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product, a list of symptoms it treats (back pain, joint pain, etc.),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manufacturer. The text emphasizes its effectiveness and safety.